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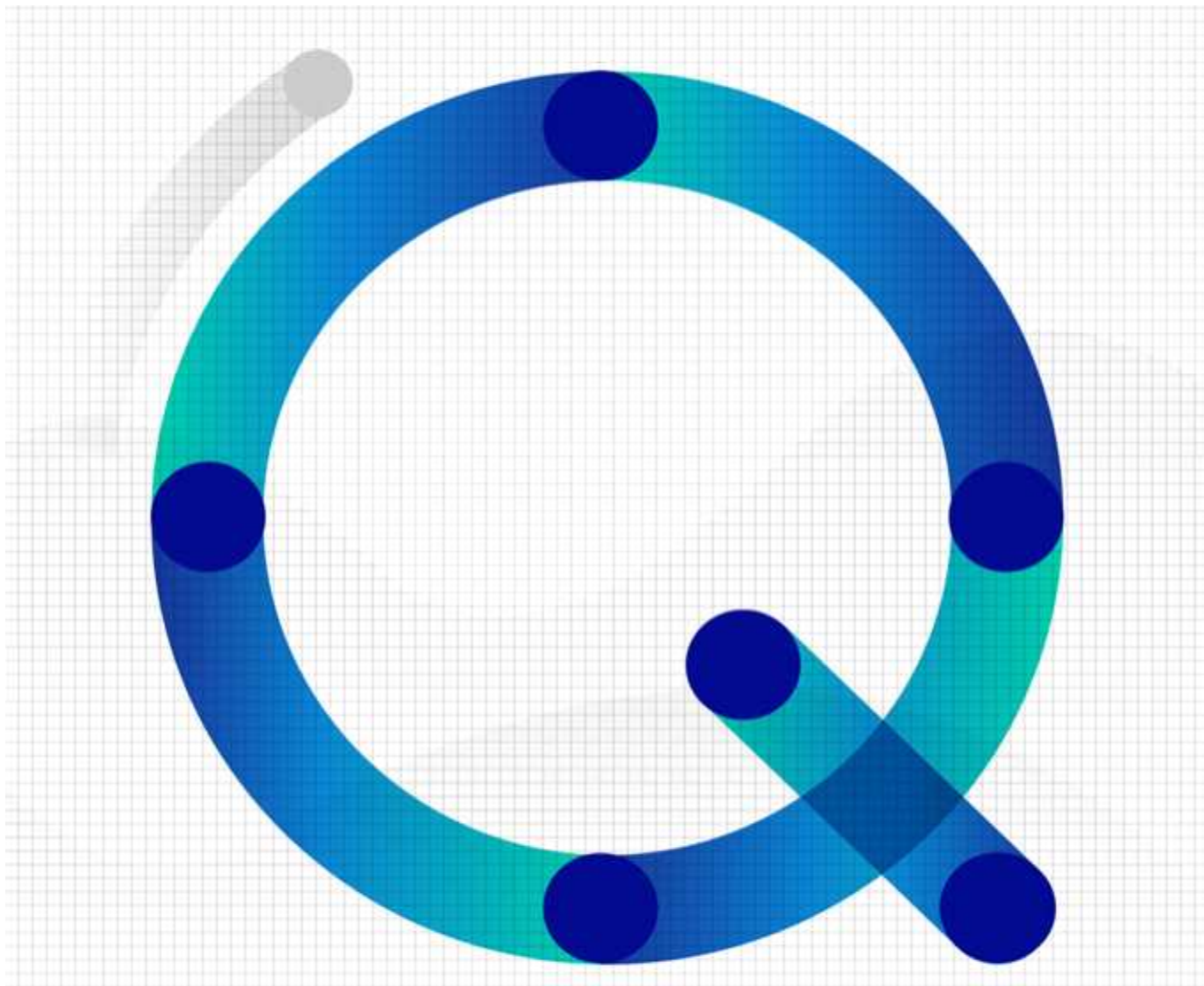
2022년 하반기 해외건설산업 동향

<요약>

- I. 세계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 II. 주요 발주 시장 동향
- III. 해외건설 수주 동향 및 전망
- IV. 시사점

작성

선임연구원 강정화 (6252-3612)



<요 약>

I. 세계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시장 전망) 2022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13.4조 달러로 전년 대비 3.9% 증가, 2023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14.0조 달러 전망

- 2021년 세계 건설시장은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유동성 및 글로벌 경기부양 정책으로 전년 대비 11.2%의 고성장을 기록했으나, 2022년에는 3.9% 수준으로 성장세가 둔화
- 2023년 세계 건설시장은 2022년에 이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그 성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높아질 전망
- 2023년 세계 건설시장은 글로벌 공급망 복구에 따른 기자재·인력 수급 원활화로 지연되었던 프로젝트 발주가 재개되고, 그린에너지 등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진행돼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하지만 최근 빠른 금리인상은 세계 건설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성장률은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 존재

(지역별) 2023년 지역별 시장규모 전망은 아시아 7.46조 달러, 유럽 3.11조 달러, 북미 2.26조 달러, 중동·아프리카 0.71조 달러, 중남미 0.46조 달러 순

- 아시아 건설시장은 세계 건설시장의 53%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으로 2023년에도 4.2% 성장해 세계 건설시장 성장을 주도할 전망

(인프라) 2023년 글로벌 인프라 시장규모는 4.60조 달러로 전년 대비 7.0% 성장할 전망

-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인프라 시장은 -1.0% 역성장했으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7.9% 증가해 반등에 성공
- 2025년 글로벌 인프라 시장규모는 5.47조 달러, 2030년 7.63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 2022년 이후 연 평균 7.4% 성장해 인프라 시장은 세계 건설시장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

II. 주요 발주국 시장 동향

(중동시장) 2022년 중동 프로젝트 계약 금액은 코로나19 상황 개선 및 유가 상승으로 2019년 수준인 1,000억 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 계약액은 1,100억 달러 전망

-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동 프로젝트 계약 금액은 87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8.9% 증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공급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 될 전망



III. 해외건설 수주 동향 및 전망

(수주 동향)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25.8% 증가한 268억 달러

- 지역별 수주액을 살펴보면 중동 75.3억 달러, 아시아 110.0억 달러, 북미 34.6억 달러, 유럽 29.6억 달러, 아프리카 11.5억 달러, 중남미 5.4억 달러를 기록
- 핵심 수주지역인 중동 및 아시아 수주가 전년 대비 각각 30.7%, 32.5% 증가해, 올해 해외건설 수주를 견인하고 있음
- **2022년 해외건설 수주 예상치는 320억 달러였으며, 현 추이가 지속될 경우 320억 달러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하반기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 대외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력 시장인 중동 및 아시아 수주가 전년 대비 증가

(수주 전망) 2023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중동 수주 회복으로 올해 보다 증가한 350억 달러 전망

- 2023년 중동 수주액은 최소 150억 달러, 최대 250억 달러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가스 가격이 고공행진을 함에 따라 LNG 관련 중동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5,000억 달러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발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중동수주가 회복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금리상승에 따른 2023년 글로벌 경제상황은 전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증가할 전망
- 2023년에는 국내 건설경기 악화로 수주물량 확보를 위한 우리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해외수주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IV. 시사점

우리 기업들의 과거 수익성 중심의 보수적인 수주 스탠스에서 일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수주로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돼 2023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3년 국내 건설수주액은 전년 대비 7.5% 감소한 206.8조 원으로 민간 및 공공부문 모두 부진할 것으로 예상

우리 건설사들의 향후 신성장 동력은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확장을 위한 사업발굴 및 금융역량 강화가 필요

I. 세계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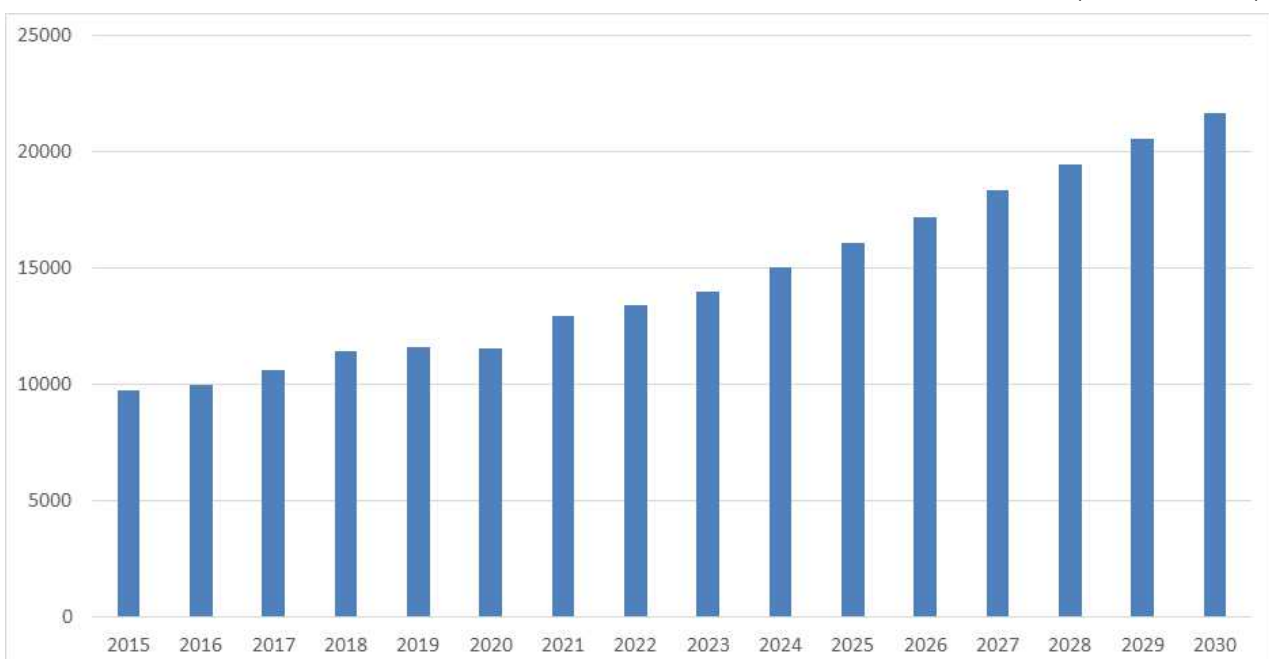
1. 세계 건설시장 동향

2022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13.4조 달러로 전년 대비 3.9% 증가, 2023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14.0조 달러 전망

- 2021년 세계 건설시장은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유동성 및 글로벌 경기부양 정책으로 전년 대비 11.2%의 고성장을 기록했으나, 2022년에는 3.9% 수준으로 성장세가 둔화
- 2023년 세계 건설시장은 2022년에 이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그 성장세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
- 2023년 세계 건설시장은 글로벌 공급망 복구에 따른 기자재·인력 수급 원활화로 지연되었던 프로젝트 발주가 재개되고, 그린에너지 등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진행돼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하지만 최근 빠른 금리인상은 세계 건설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성장률은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 존재
- 2024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15.0조 달러로 전년 대비 7.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은 2024년 이후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
- 세계 건설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인프라 수요를 중심으로 성장할 전망

세계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2. 지역별 건설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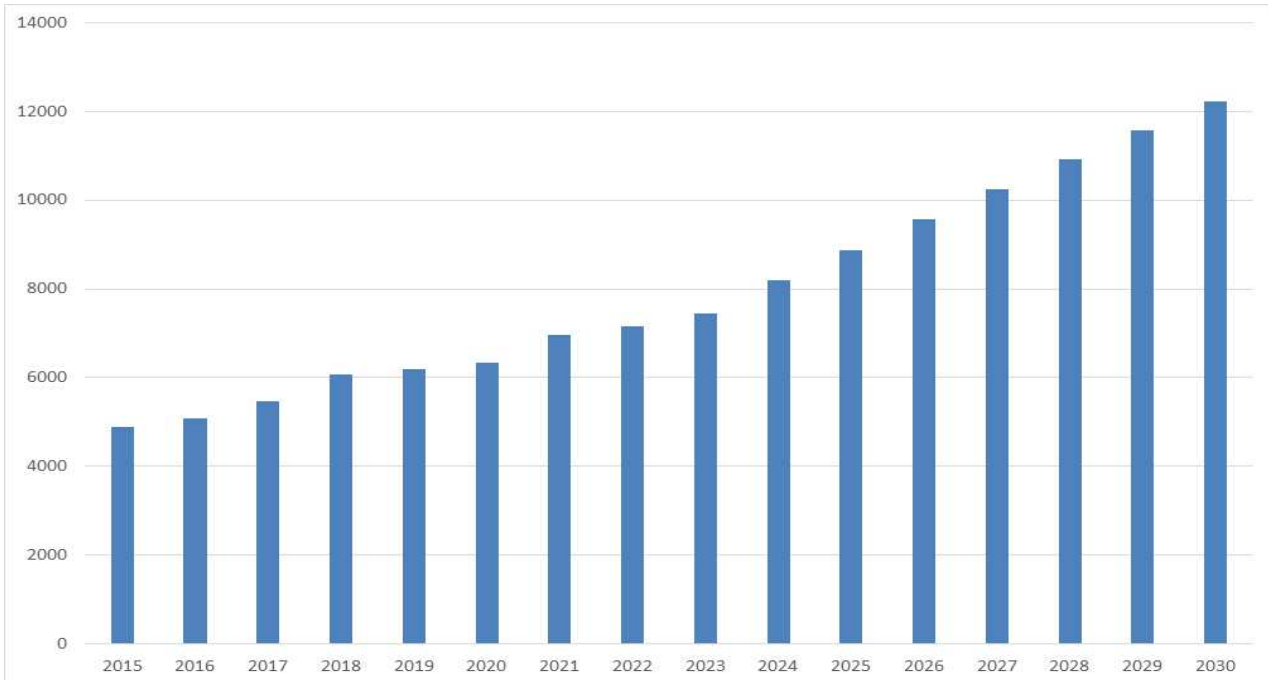
(아시아) 2022년 아시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7.16조 달러로 추정되며, 2023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7.46조 달러 전망

- 아시아 건설시장은 세계 건설시장의 53%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으로 철도, 도로 등 경제개발과 관련된 교통 인프라 수요와 에너지 공급을 위한 발전 인프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
- 코로나19 상황으로 세계 건설시장이 역성장한 2020년에도 아시아 건설시장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
- 2022년 중국 건설시장 규모는 4.5조 달러로 전년 대비 2.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시아 건설시장도 소폭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
- 중국 건설시장은 아시아 건설시장의 63%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시장이 위축될 경우 아시아 시장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조치로 2022년 건설시장 성장 둔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3년 역시 4%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2022년 인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6,54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7,01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아시아 2위 건설시장인 인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개도국 건설시장은 2023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2022년 일본 건설시장 규모는 5,0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시장규모도 5,170억 달러로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한 2019년 5,920억 달러에도 못 미칠 전망
- 2022년 호주 건설시장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3,620억 달러로 예상되며, 2023년 시장규모는 4.7% 감소한 3,450억 달러 전망
- 2022년 동남아시아 주요국 건설시장 규모는 인도네시아 4,100억 달러, 필리핀 480억 달러, 말레이시아 420억 달러, 태국 440억 달러, 베트남 410억 달러로 예상되며, 2023년 시장규모는 인도네시아 4,210억 달러, 필리핀 530억 달러, 말레이시아 470억 달러, 베트남 460억 달러 전망
- 아시아 건설시장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2024년 이후 성장 궤도에 다시금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8.2조 달러를 기록할 전망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금리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2023년 상반기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3년 하반기 이후 서서히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



아시아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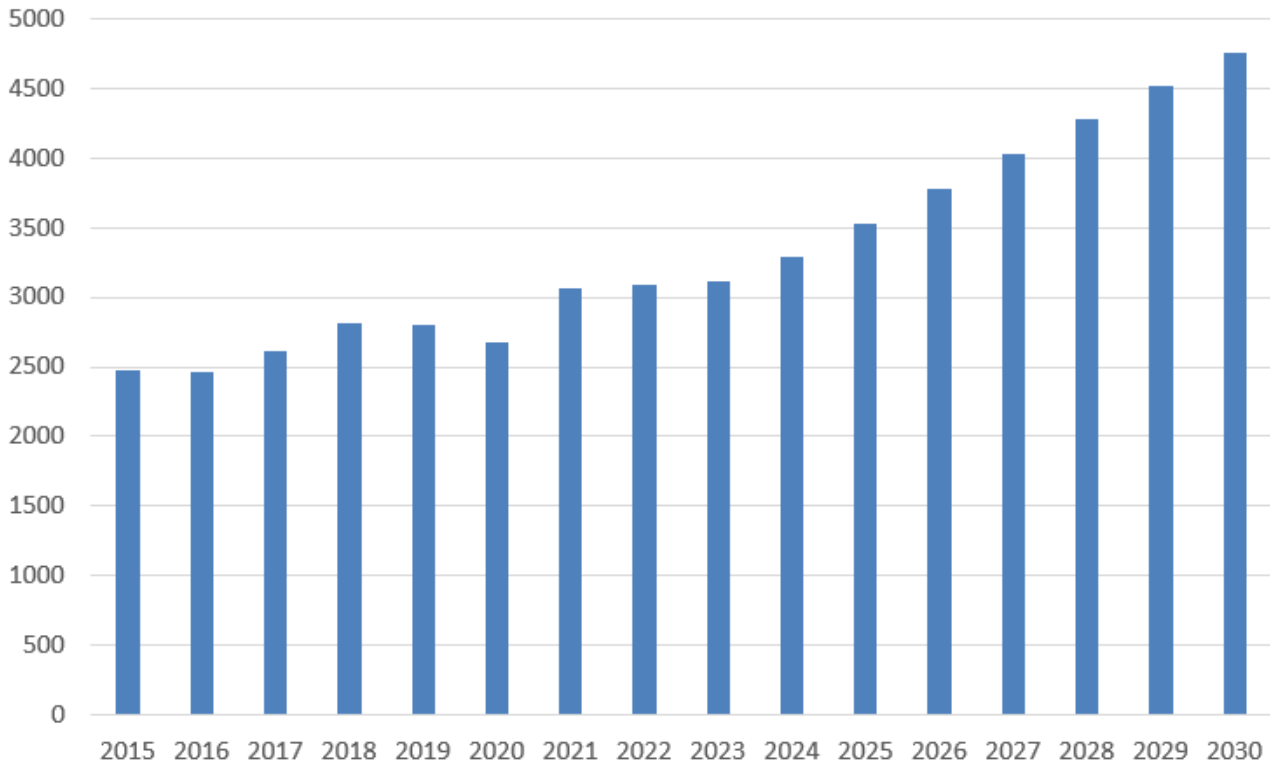
자료: IHS

(유럽) 2022년 유럽 건설시장 규모는 3.08조 달러로 추정되며, 2023년 시장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3.11조 달러 전망

- 유럽 건설시장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2020년 역성장을 기록했으나, 2021년부터 성장세를 기록 중
- 2021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3.08조 달러였으며, 2022년 시장규모는 3.08조 달러로 성장세는 크게 둔화
- 2023년 유럽 건설시장도 전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가스 가격 폭등 및 금리인상 등 경제 불확실성은 유럽 건설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유럽 주요 국가의 2023년 시장규모는 독일 4,280억 달러, 영국 4,250억 달러, 독일 3,850억 달러, 프랑스 3,630억 달러, 이탈리아 2,900억 달러, 러시아 2,300억 달러
- 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될 경우 관련 인프라 및 주택 시설 복구를 위한 시장이 열릴 전망
- 2022년 우크라이나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7% 감소한 181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23년 종전될 경우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97% 증가한 356억 달러를 형성할 전망
- 유럽 시장은 2024년 3.28조 달러, 2025년 3.53조 달러로 2024년 이후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

유럽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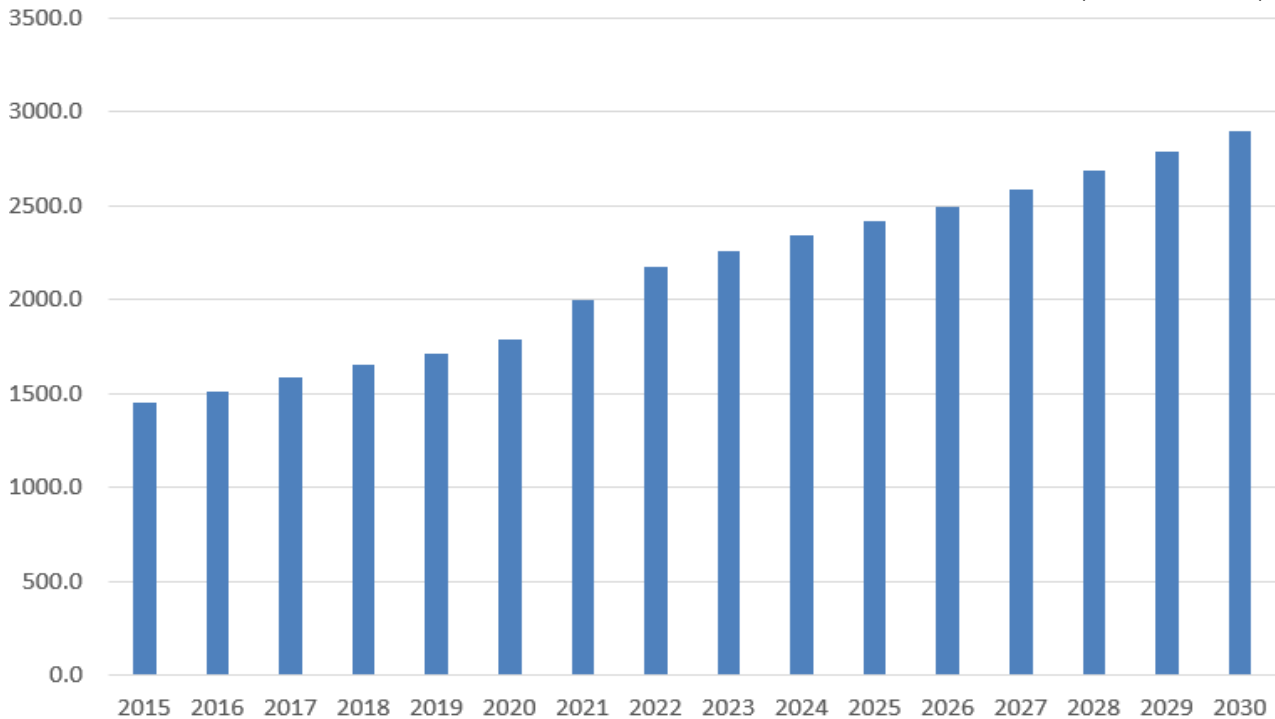
(북미) 2022년 북미 건설시장 규모는 2.18조 달러로 추정되며, 2023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2.26조 달러 전망

- 미국 경기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2023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1.84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빠른 인플레이션으로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있지만, 고용시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여전히 좋은 상황
- 2024년 미국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1.91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시장규모는 1.97조 달러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미국 건설시장 호황으로 2023년 북미 건설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북미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2.34조 달러 전망
-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실행으로 전기자동차, 리튬 이차전지,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위한 관련 건설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



북미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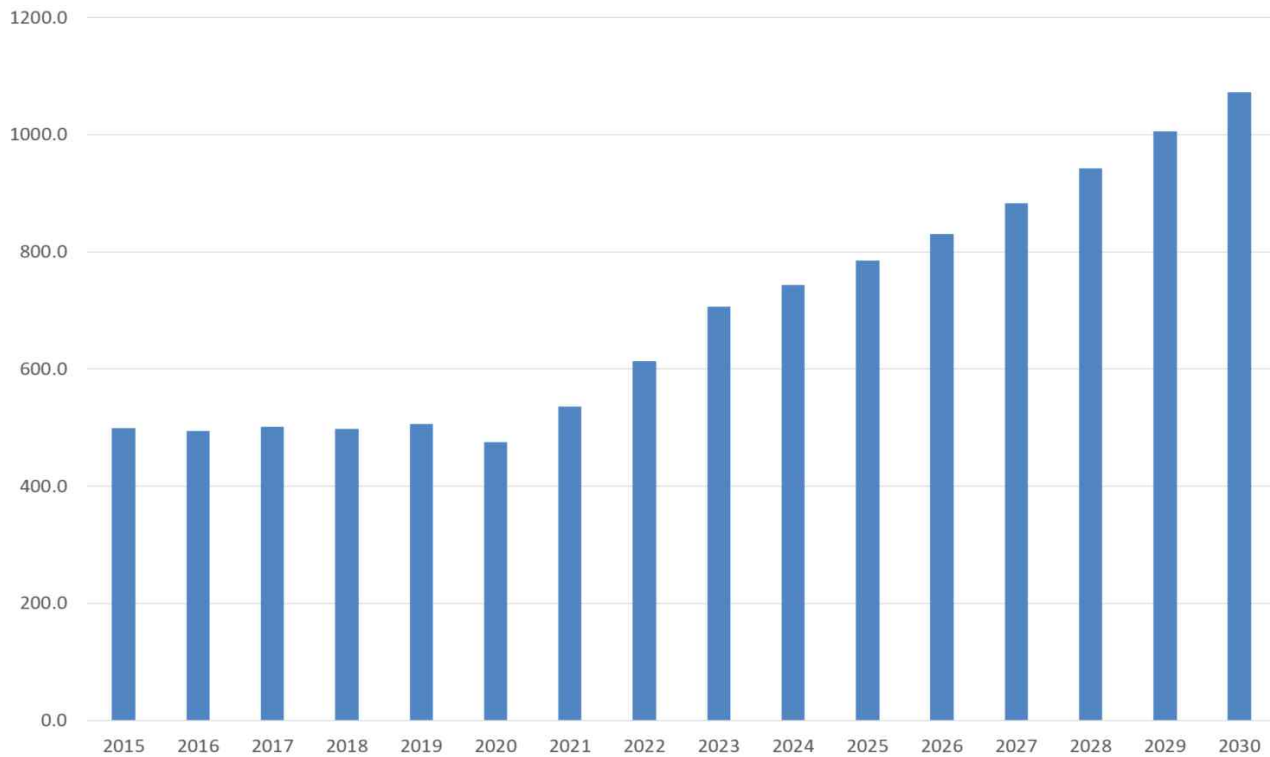
(중동 및 아프리카) 2022년 건설시장 규모는 6,135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3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5.3% 증가한 7,072억 달러 전망

- 세계 건설시장의 4.6%에 불과한 작은 시장이나, 민간기업에게 시장 개방도가 높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지역
-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중동 건설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2021년부터 유가 상승과 더불어 회복세를 기록 중
- 2021년 중동·아프리카 건설시장 성장률은 12.9%였으며, 2022년 14.4%, 2023년 15.3%에 달할 것으로 예상
- 2023년 주요 중동국가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1,227억 달러), UAE(979억 달러), 카타르(959억 달러), 이집트(606억 달러),
- 사우디아라비아는 총 사업비 5,000억 달러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2030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며, 카타르의 1,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업, UAE의 경기부양을 위한 343억 달러 투자가 대표적 사업
- 두자릿 수 성장률을 기록했던 중동·아프리카 건설시장은 2024년 이후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
- 2024년 시장규모는 7432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시장규모는 7,853억 달러로 전년 대비 5.7% 증가



중동·아프리카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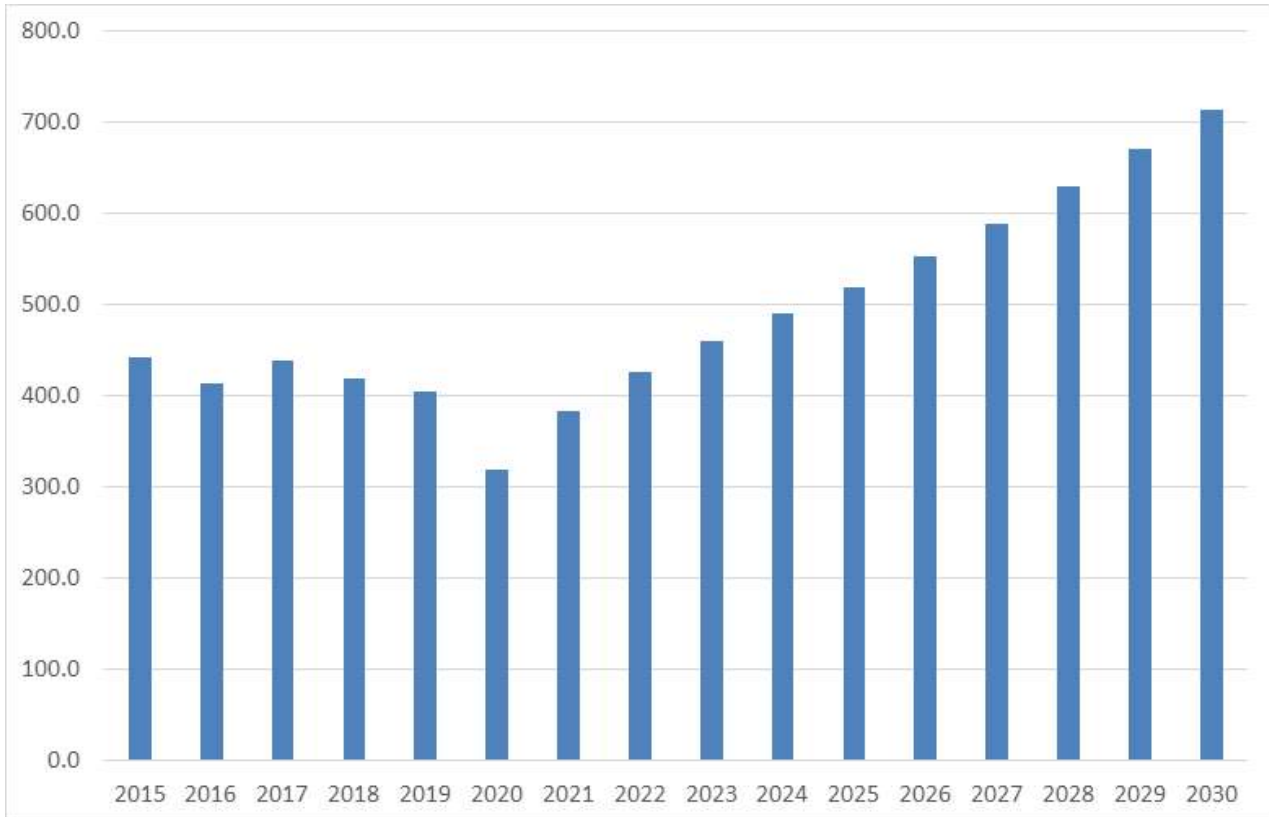
(남미) 2022년 건설시장 규모는 4,255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3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7.9% 증가한 4,593억 달러 전망

- 2012년 이후 중남미 건설시장은 경제부진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0년 건설시장 성장률은 코로나 사태로 -21.4% 역성장을 기록
- 2021년 남미 건설시장은 전년 대비 20.5% 성장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으며, 2022년에도 11% 성장
- 하지만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경우 실질 성장률은 이보다는 크게 낮았을 것으로 추정
- 2023년 주요 남미국가의 시장규모는 브라질 1,885억 달러, 콜롬비아 499억 달러, 아르헨티나 466억 달러, 파나마 406억 달러 순
- 남미 건설시장은 2025년 5,190억 달러, 2030년 7,13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남미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3. 세계 인프라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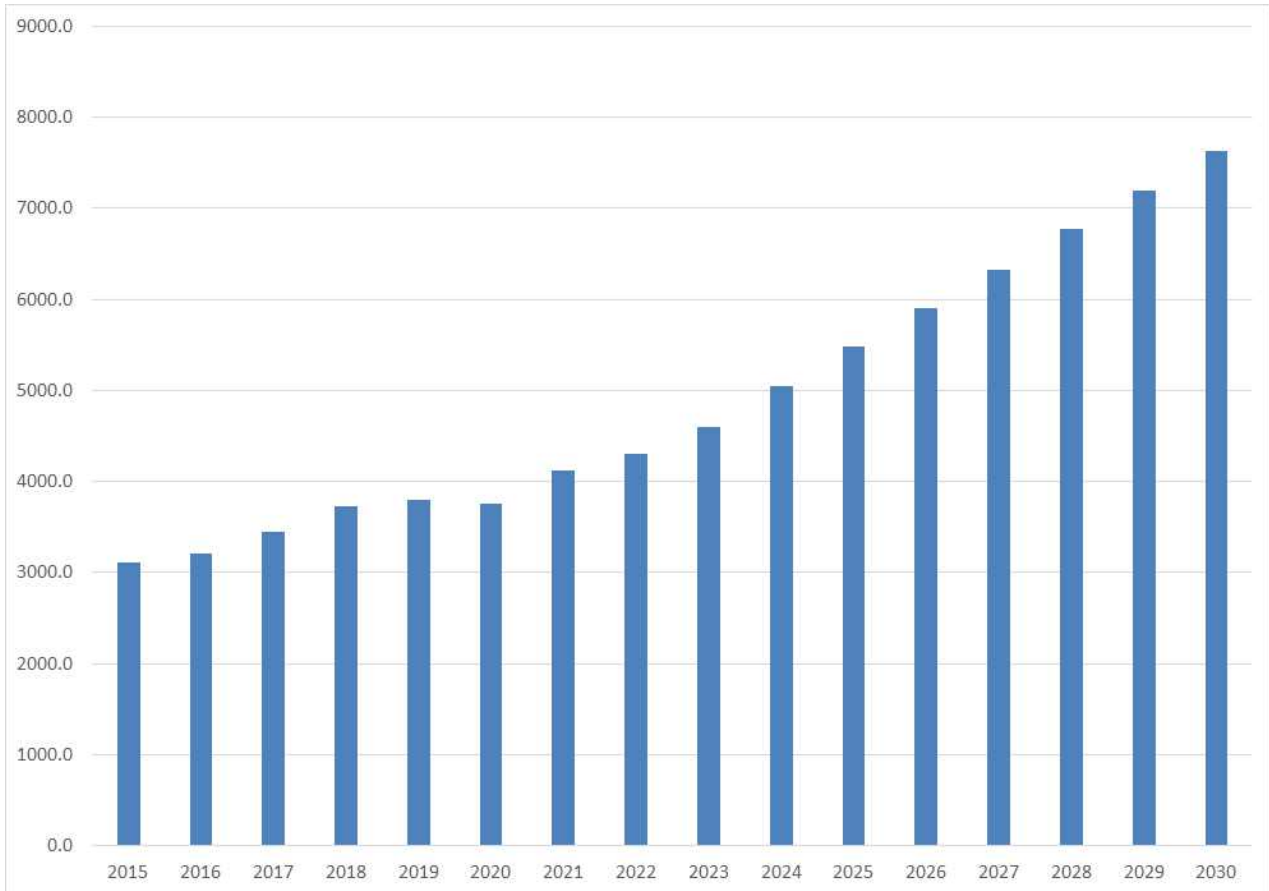
(글로벌) 2022년 세계 인프라 시장규모는 4.31조 달러로 추정되며, 2030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7.0% 성장한 4.60조 달러 전망

-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인프라 시장은 -1.0% 역성장했으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7.9% 증가해 반등에 성공
- 2023년 글로벌 인프라 시장은 여러 경제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미래 성장을 위한 글로벌 투자는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 2025년 글로벌 인프라 시장규모는 5.47조 달러, 2030년 7.63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과거 화석에너지 기반의 인프라에서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및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
- 2022년 이후 연 평균 7.4% 성장해 인프라 시장은 세계 건설시장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



글로벌 인프라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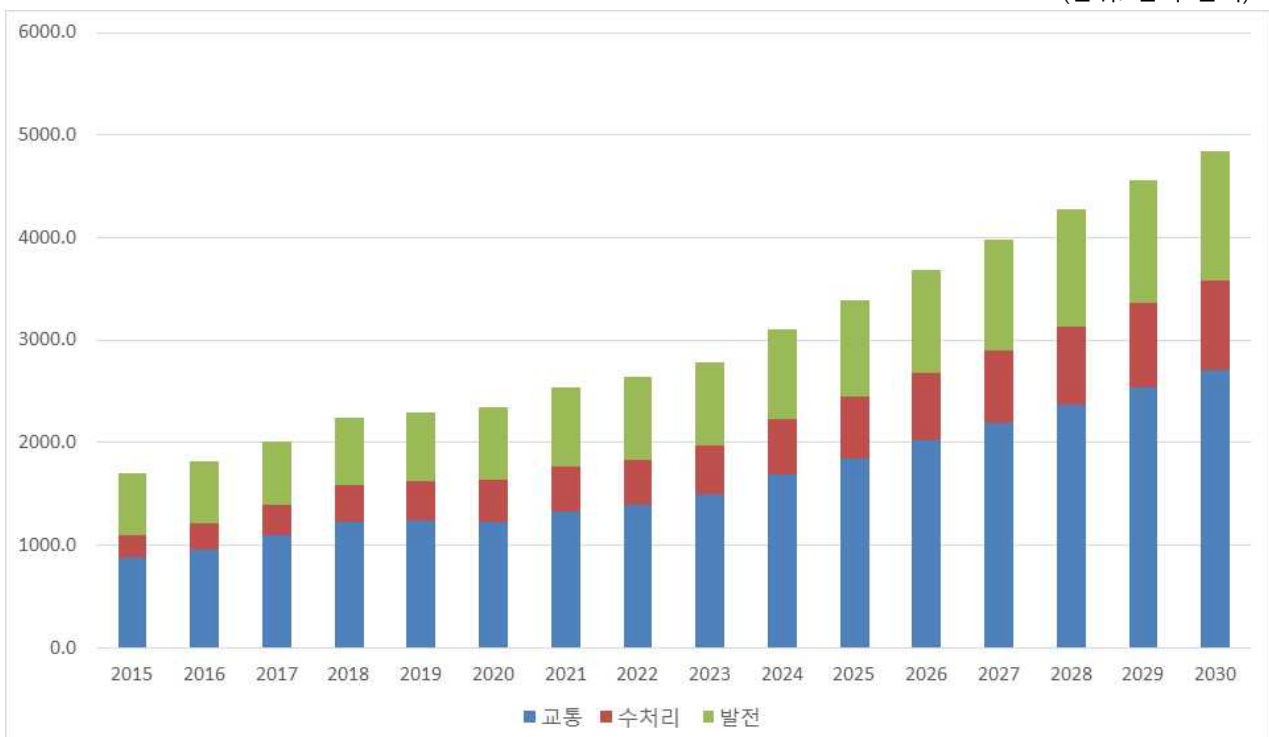
(아시아) 2022년 인프라 시장규모는 2.64조 달러로 추정되며, 2023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2.78조 달러 전망

- 2020년 아시아 인프라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성장률이 2.7%에 불과했으나, 2021년 성장률은 기저효과로 8.3%를 기록
- 2022년 성장률은 3.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성장률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5.3%를 기록할 전망
- 2021년 기준 아시아 인프라 시장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2022년 인프라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7.5% 증가한 1.6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규모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1.7조 달러로 성장세가 다소 낮아질 전망
- 2023년 주요 아시아 국가 인프라 시장규모 전망은 일본(2,600억 달러), 인도네시아(2,095억 달러), 호주(1,797억 달러), 인도(1,707억 달러), 한국(736억 달러), 태국(256억 달러), 말레이시아(173억 달러), 베트남(124억 달러)

- 2022년 분야별 인프라 시장 규모는 도로 등 교통 분야 1.40조 달러, 발전분야 0.81조 달러, 수처리 0.44조 달러를 형성해 전년 대비 각각 7.7%, 3.8%, 2.3% 증가
- 2023년 분야별 인프라 시장규모는 교통분야 1.49조 달러, 발전분야 0.81조 달러, 수처리 0.48조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6.4%, 0.9%, 9.1% 성장할 전망
- 2030년 분야별 인프라 시장규모는 교통분야 2.71조 달러, 발전분야 1.26조 달러, 수처리 0.87조 달러로, 각 분야의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교통 9.0%, 발전 6.5%, 수처리 8.9%
- 아시아지역은 글로벌 인프라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도로 등 교통분야 인프라 시장이 빠르게 커질 전망

아시아 인프라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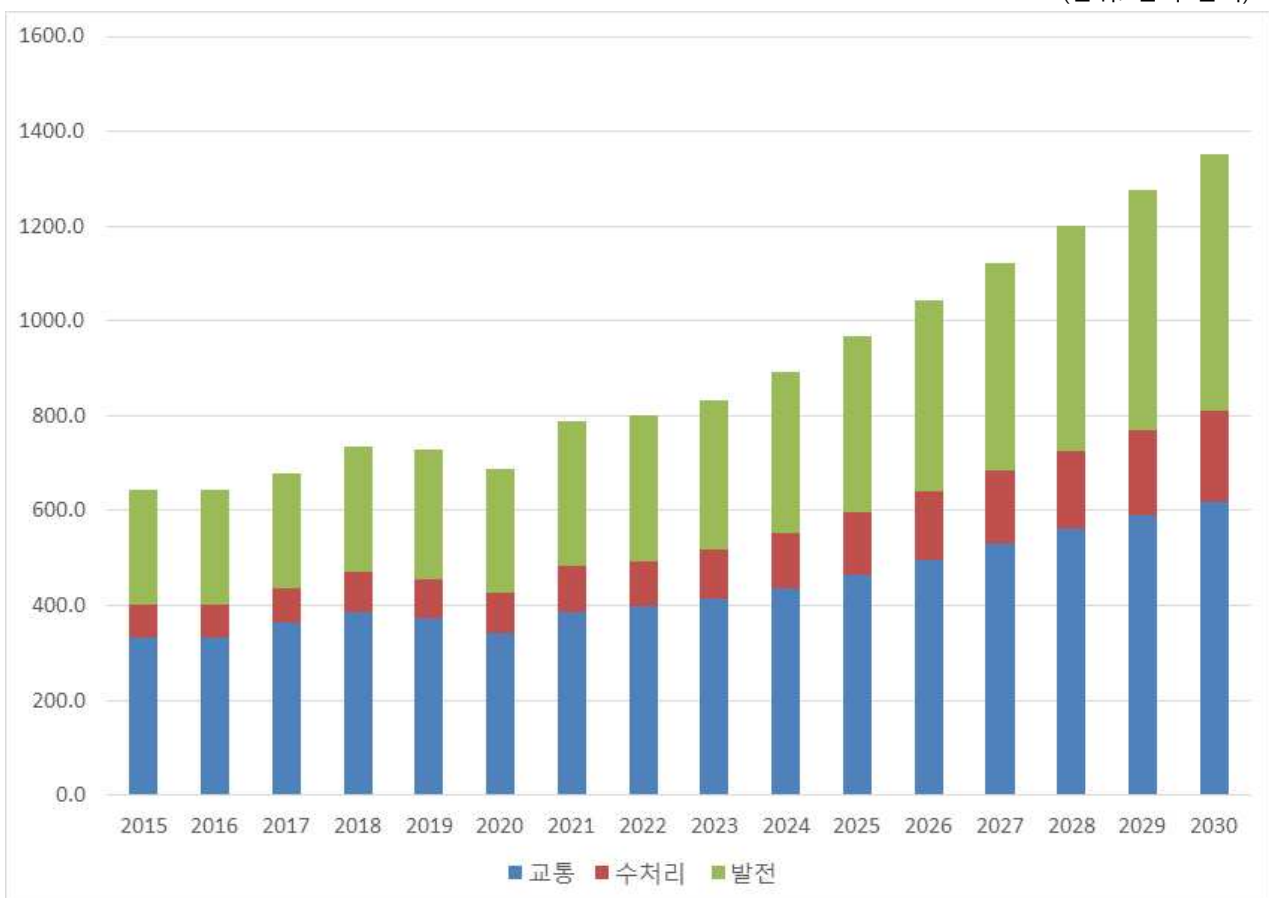
(유럽) 2022년 인프라시장 규모는 0.80조 달러로 추정되며, 2023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0.83조 달러

-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2020년 유럽 인프라 시장은 전년 대비 -5.8% 역성장을 기록했으나, 2021년 14.7% 증가한 0.79조 달러를 기록
- 2021년 큰 폭의 성장세로 2022년 성장률은 전년 대비 1.5% 증가에 그쳤으며, 2023년 전망치는 전년 성장률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

- 2022년 인프라 분야별 시장규모는 교통분야 0.40조 달러, 발전분야 0.31조 달러, 수처리 0.10조 달러 순
- 시장이 성숙한 선진 시장으로 인해 아시아 대비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낮으나, 탄소중립 및 ESG 등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용 교통시스템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 2030년 인프라 분야별 시장규모는 교통분야 0.62조 달러, 발전분야 0.54조 달러, 수처리 0.19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유럽 인프라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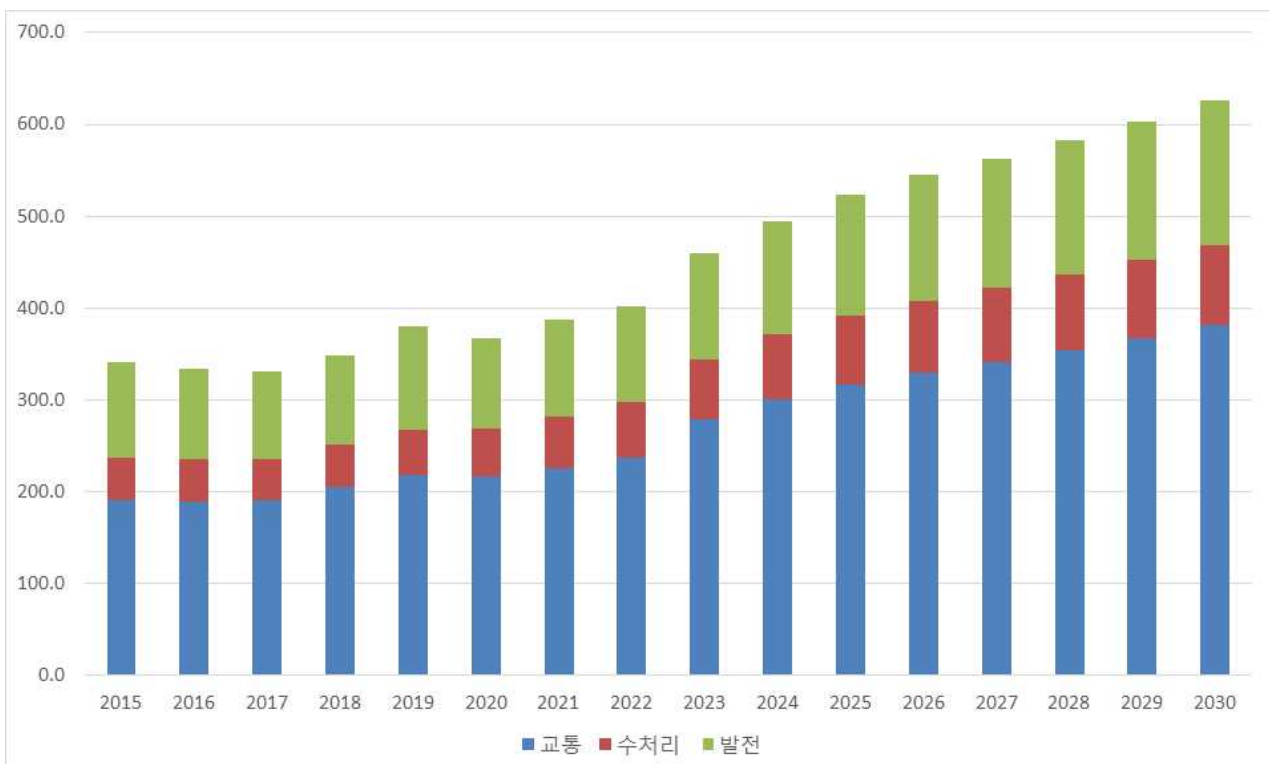
자료: IHS

(북미) 2022년 북미 인프라시장 규모는 0.39조 달러로 추정되며, 2023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0.40조 달러

- 2019년 0.38조 달러를 기록했던 북미 인프라시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시장규모가 전년 대비 2.2% 감소했으나, 2021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5.4% 증가 0.37조 달러로 반등
- 2022년 북미 인프라시장은 전년 대비 5.5%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 북미 인프라시장 규모는 미국 인프라시장의 20% 고성장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0.46달러 전망
- 2022년 미국 인프라시장 규모는 0.24조 달러로 전년 대비 16.0% 감소했으나, 2023년 시장규모는 0.29조 달러로 전년 대비 21% 성장할 전망
- IRA 시행으로 친환경 분야 인프라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자동차 및 재생에너지 분야가 중심이 될 전망
- 2022년 분야별 북미 인프라시장 규모는 교통분야 0.24조 달러, 발전분야 0.10조 달러, 수처리 0.06조 달러이며, 2023년 시장규모는 교통분야 0.28조 달러, 발전분야 0.12조 달러, 수처리 0.06조 달러
- 2025년 북미 인프라시장 규모는 0.52조 달러, 2030년 0.63조 달러로 성장할 전망

북미 인프라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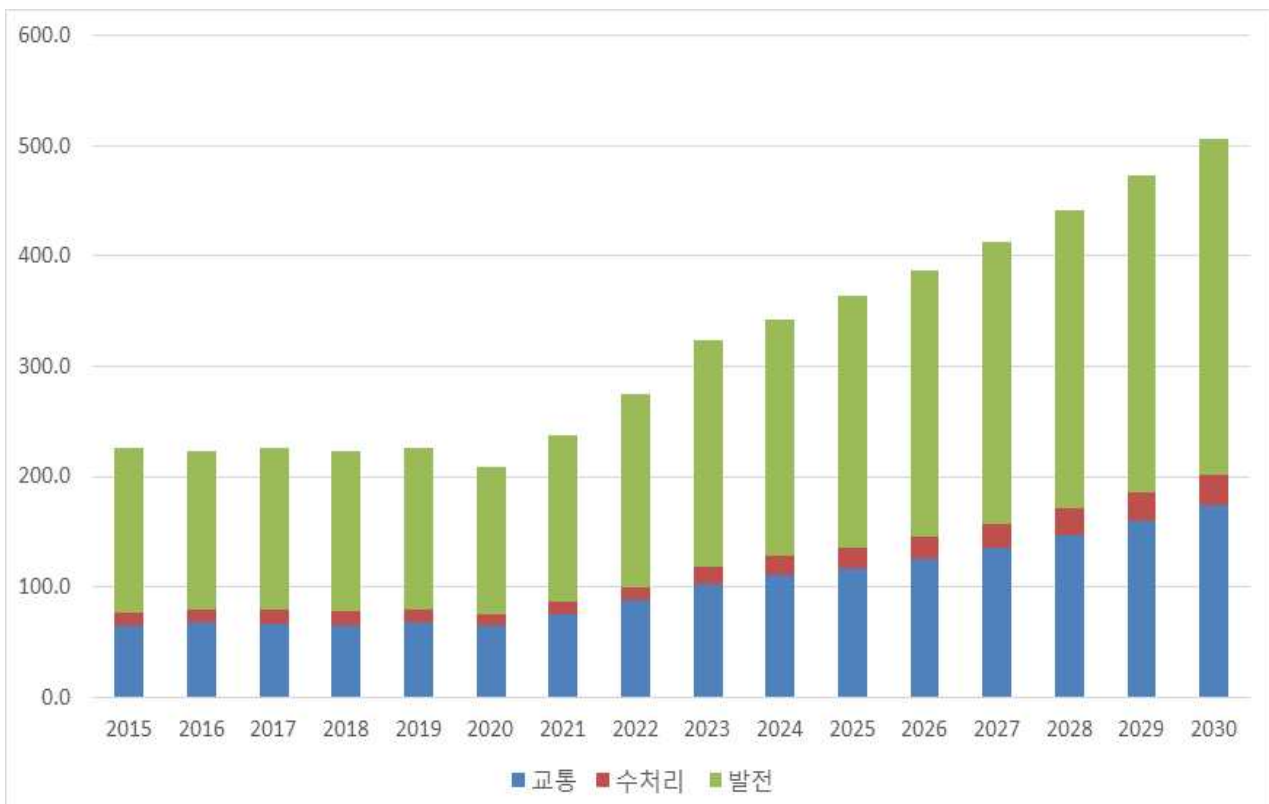
자료: IHS

(중동·아프리카) 2022년 인프라시장 규모는 0.28조 달러로 추정되며, 2023년 인프라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4.3% 증가한 0.32조 달러

- 코로나19로 피해로 2020년 7.5% 역성장한 0.21조 달러를 기록했으나, 2021년 전년 대비 13.4% 증가한 0.24조 달러를 기록
- 2022년에도 고성장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 시장 전망도 글로벌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상황
- 2023년 기준 분야별 시장규모는 발전분야 0.20조 달러, 교통분야 0.10조 달러, 수처리 160억 달러로 발전분야가 가장 큰 시장을 형성
- 2025년 시장규모는 0.36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 시장규모는 0.51조 달러에 달할 전망
- 2025년 분야별 시장규모는 발전분야 0.23조 달러, 교통분야 0.12조 달러, 수처리 183억 달러이며, 2030년 시장규모는 발전분야 0.30조 달러, 교통분야 0.17조 달러, 수처리 280억 달러 전망

중동·아프리카 인프라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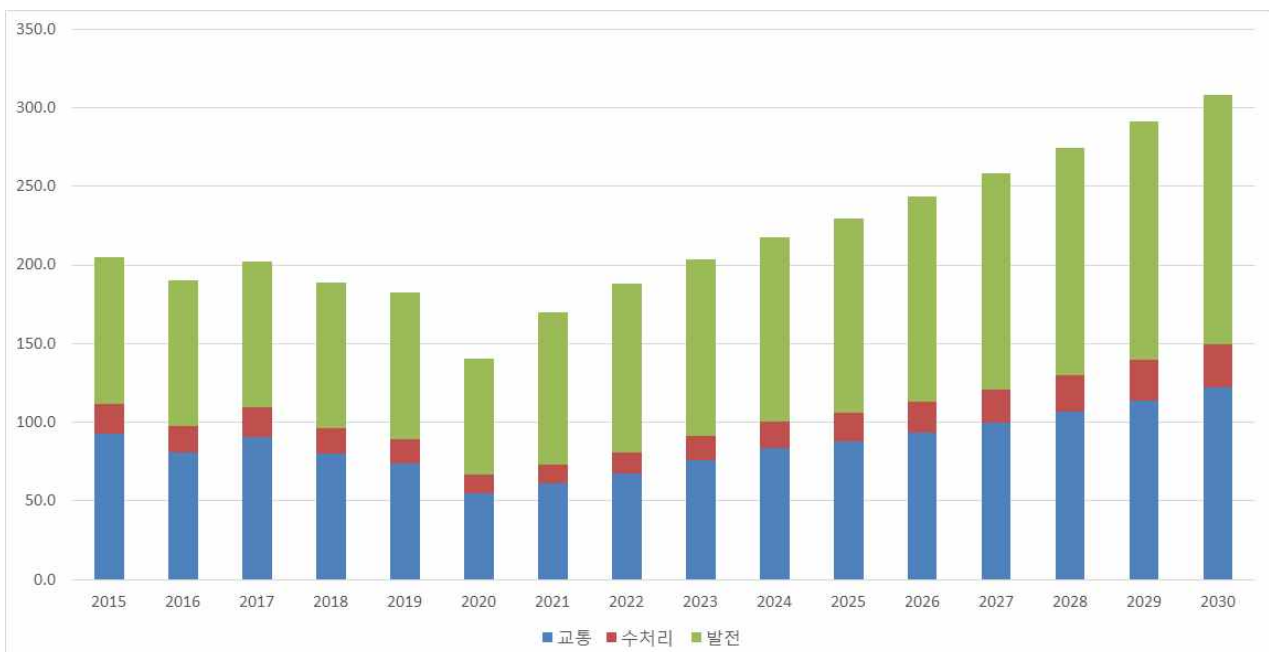
자료: IHS

(남미) 2022년 남미 인프라시장 규모는 0.19조 달러로 추정되며, 2023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0.20조 달러

- 남미는 코로나19로 2020년 인프라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23.1% 급락했으나, 2021년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21.4% 증가한 0.17조 달러를 기록
- 2022년에는 2019년 시장 규모를 회복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5.2%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23년 기준 분야별 시장규모는 발전분야 0.11조 달러, 교통분야 761억 달러, 수처리 15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25년 분야별 시장규모는 발전분야 0.12조 달러, 교통분야 875억 달러, 수처리 185억 달러로 예상되며, 2030년 시장규모는 발전분야 0.16조 달러, 교통분야 0.12조 달러, 수처리 277억 달러 전망

남미 인프라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II. 주요 발주시장 동향

1. 중동 발주 동향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동 프로젝트 계약 금액¹⁾은 87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8.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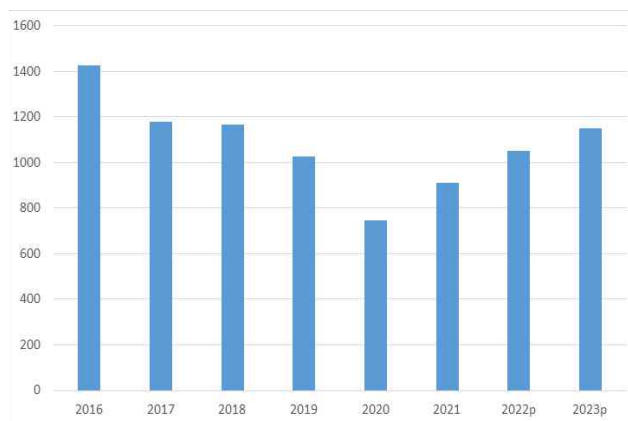
- 2022년 5월, 6월, 10월에 110억 달러 이상의 대형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안정적인 유가 상황으로 2022년 계약 금액은 전년 보다 크게 증가
- 현 추이가 지속될 경우 2022년 중동 프로젝트 계약 금액은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2023년 중동 프로젝트 계약 금액은 유가의 안정세로 지연되어 왔던 프로젝트 발주의 본격화 및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 증가로 1,1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

- 중동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UAE의 재정균형유가는 배럴당 50~65 달러 선이며,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 재정균형 유가 수준을 넘어서 중동지역 발주 여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2016년 이후 침체를 겪고 있는 중동 시장은 유가 상승에 따른 중동지역 국가들의 지출 여력 확대로 그동안 지연되었던 프로젝트 발주되면서 서서히 활기를 되찾을 전망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공급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 될 전망

중동 건설 계약 및 재정 균형 유가 동향

(단위: 억 달러, \$/bbl)



	2018	2019	2020	2021	2022p
알제리	101	106	90	170	138
바레인	94	81	100	88	86
이란	76	198	304	242	259
이라크	45	52	64	71	66
쿠웨이트	54	55	68	69	65
리비아	96	94	417	49	47
오만	97	85	96	72	62
카타르	49	50	46	43	40
사우디	89	82	78	76	66
UAE	64	62	68	65	60

자료: MEED, IMF

1) 중동 프로젝트 계약 금액 : 외부에 오픈돼 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된 프로젝트 금액을 말하며, 중동 건설 시장 중 외국 기업이 접근 가능한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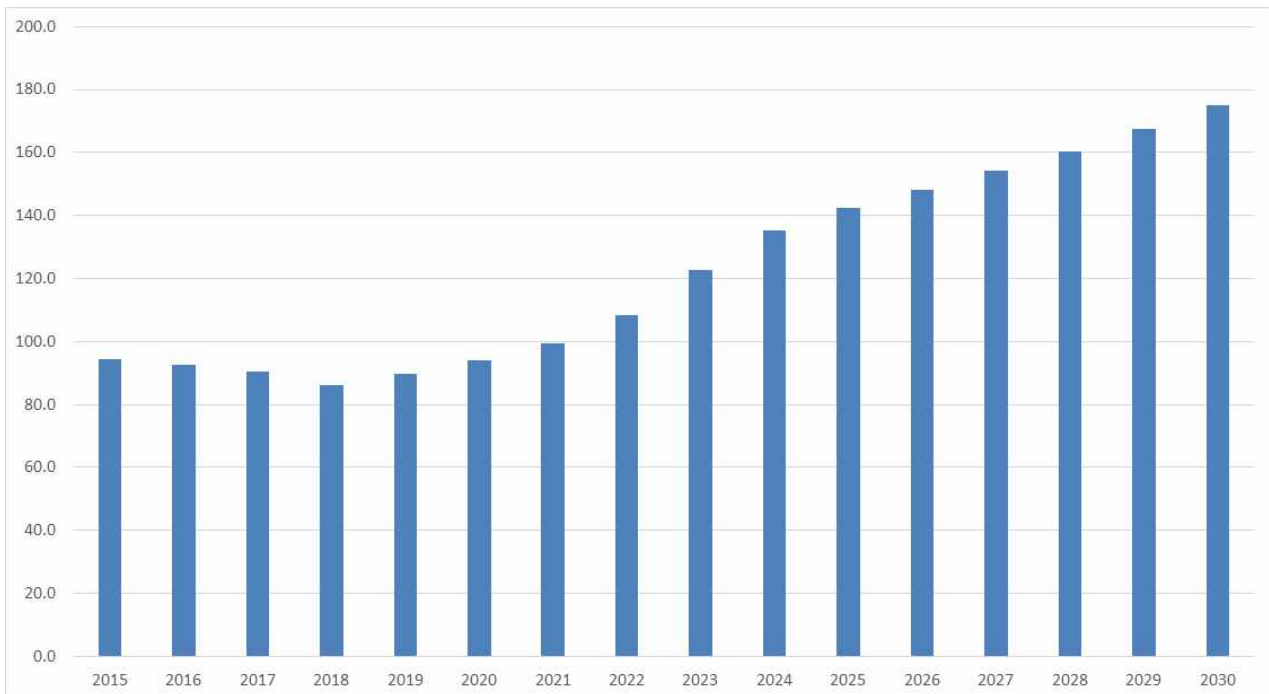
2. 주요 중동국가 시장 동향

(사우디아라비아) 2023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227억 달러

- 사우디아라비아는 연 900억 달러 이상의 시장을 형성했으나, 글로벌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2022년 이후 1,000억 달러 이상 시장으로 성장
- 2023년 이후 시장 성장세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1,423억 달러, 2030년 1,749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해 중동 최대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
- 포스트 석유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네옴시티와 같은 미래 도시 건설로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가 예상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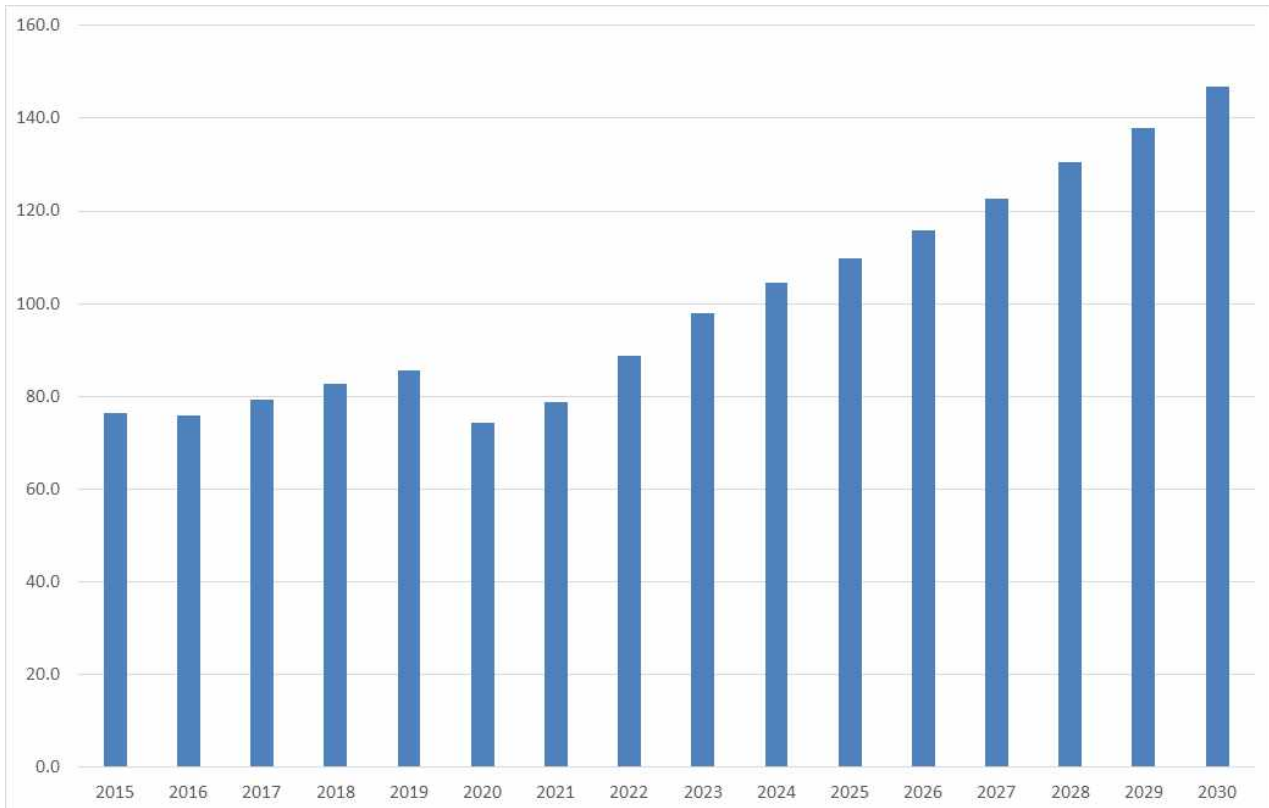
(UAE) 2023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0.4% 증가한 979억 달러 전망

- 인프라 수요가 꾸준한 상황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석유 및 천연가스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으로 재정적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
- 꾸준한 인프라 수요 증가로 인해 UAE 건설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1,099억 달러, 2030년 1,468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UAE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카타르) 2023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959억 달러 전망

- 중동시장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천연가스 추가 공급을 위한 시설 투자가 크게 증가할 전망
- 러시아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 대한 가스공급 중단으로 천연가스 확보를 위한 중동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 카타르는 중동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 중 하나로 늘어나는 가스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시설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III. 해외건설 수주 동향 및 전망

1. 수주동향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25.8% 증가한 268억 달러

- 지역별 수주액을 살펴보면 중동 75.3억 달러, 아시아 110.0억 달러, 북미 34.6억 달러, 유럽 29.6억 달러, 아프리카 11.5억 달러, 중남미 5.4억 달러를 기록
- 핵심 수주지역인 중동 및 아시아 수주가 전년 대비 각각 30.7%, 32.5% 증가해, 올해 해외건설 수주를 견인하고 있음
- 중동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지연되었던 발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 및 이집트를 중심으로 수주가 전년동기 대비 증가 중
- 아시아 지역은 인도네시아(34.3억 달러), 필리핀(15.5억 달러), 베트남(14.5억 달러) 등에서 전년동기 대비 수주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음
- 공종별 수주액을 살펴보면 토목 54.5억 달러, 건축 67.9억 달러, 플랜트 113.8억 달러를 기록
- 건축분야 수주가 전년동기 대비 143% 증가한 것이 특징이며, 건축 수주액 67.9억 달러 중 공장분야가 56.1억 달러를 차지

2022년 해외건설 수주 예상치는 320억 달러였으며, 현 추이가 지속될 경우 320억 달러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하반기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 대외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력 시장인 중동 및 아시아 수주가 전년 대비 증가
- 코로나 상황 개선 및 유가 상승으로 중동 발주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 중동 수주가 증가하고 있음
- 우리 기업들의 해외 공장 건설액은 11월까지 56억 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주액의 20.9%를 차지
- 반도체 및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장의 해외 건설증가는 해외건설 수주액 증가에 크게 기여
- 2022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연초 예상치 320억 달러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11월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25.8% 증가했으며, 해외수주가 집중되는 12월에 전년 수준의 수주가 이루어진다면 320억 달러 수주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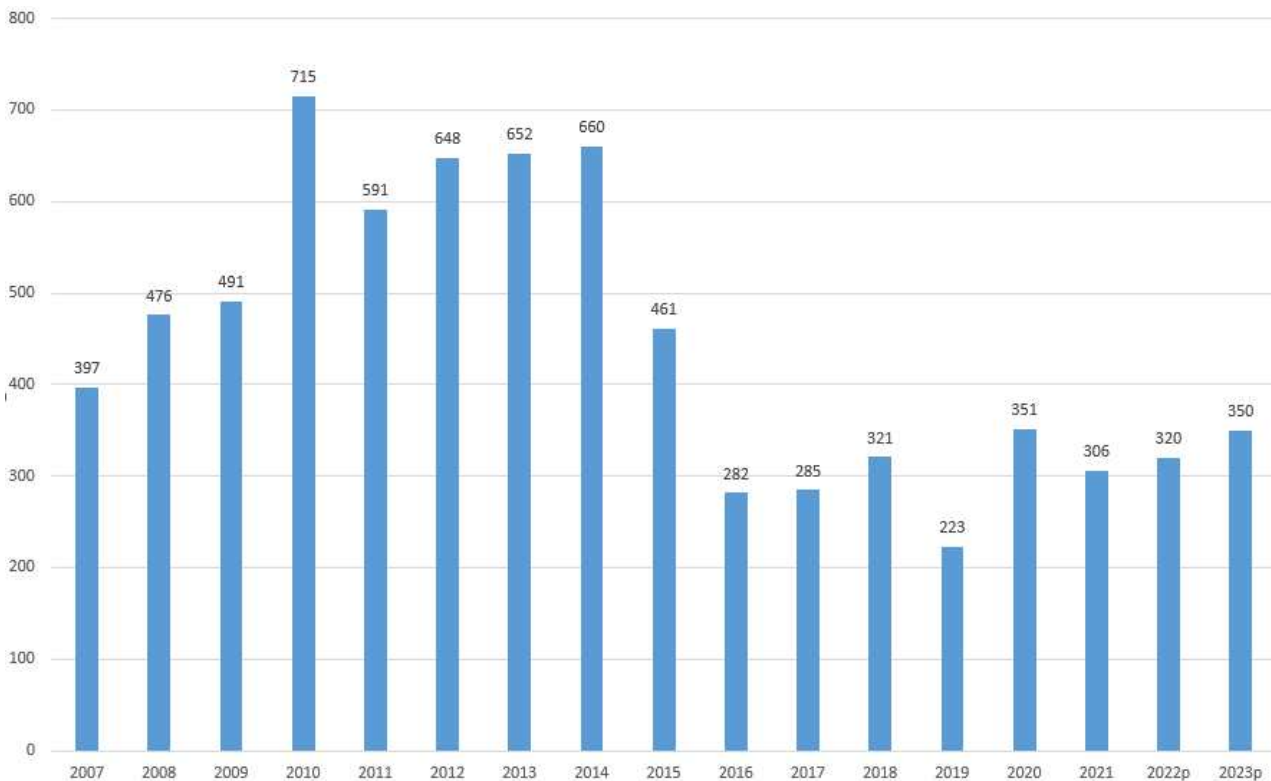
2023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중동 수주 회복으로 올해 보다 증가한 350억 달러 전망

- 중동 발주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가는 2021년 10월 이후 배럴당 70~80달러 선을 움직이고 있으며, 2023년 유가 상황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2023년 중동 수주액은 최소 150억 달러, 최대 250억 달러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가스 가격이 고공행진을 함에 따라 LNG 관련 중동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5,000억 달러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발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중동수주가 회복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금리상승에 따른 2023년 글로벌 경제상황은 전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증가할 전망
-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및 경기하강에 따른 건설수요 감소 등의 우려가 있으나, 태양광, 풍력,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인프라 수요는 견고할 것으로 예상
- 2023년에는 국내 건설경기 악화로 수주물량 확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해외 수주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또한 8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은 2023년 말에 사업자 선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등 대규모 해외수주 가능성이 높아 2023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해외건설 수주 실적 추이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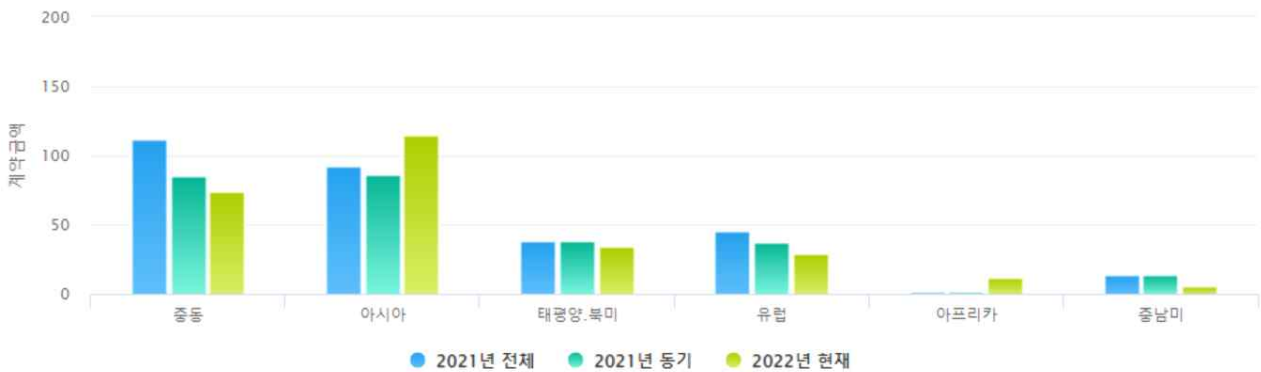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전망치는 수출입은행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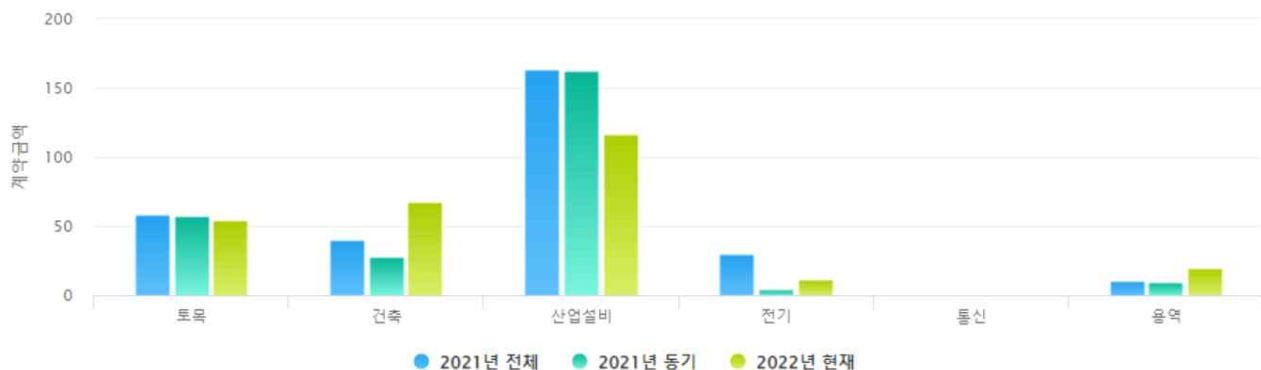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자료: 해외건설협회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 동향

(단위: 억 달러)



자료: 해외건설협회

2. 기업별 현황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수주액 268억 달러 중 상위 10개 기업 비중은 72%

- 상위 기업들의 수주액은 중동지역 수주 부진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삼성물산은 아시아에서 대형 석유화학 및 발전 플랜트 등 49억 달러를 수주하면서 1위를 기록
- 삼성엔지니어링(28억 달러), 현대엔지니어링(27억 달러), 현대건설(27억 달러), 롯데건설(15억 달러), 두산에너지(14억 달러) 순
- 상위 10개 기업 비중은 2021년 83%에서 2022년 72%로 감소
-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공장 건설 등 국내 기업들의 발주가 늘어남에 따라 대형사 중심의 수주에서 중견기업들의 수주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



- 국내 건설경기가 하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건설기업들의 수주물량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해외수주가 예상
- 금리인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향후 2~3년간 국내 건설경기가 하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만회하기 위한 해외 수주 확대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기업별 해외건설 수주 동향

(단위: 천 달러)

업체	2021/01/01~2021/11/30 A		2022/01/01~2022/11/30 B		대비율(%) (B/A)	
	공사건수	계약액	공사건수	계약액	공사건수	계약액
총 계	398	21,307,986	503	26,750,037	126	126
삼성물산	9	4,473,916	5	4,905,477	56	110
삼성ENG	4	2,314,814	6	2,753,725	150	119
현대ENG	8	1,922,418	11	2,715,401	138	141
현대건설	9	2,114,729	7	2,690,656	78	127
롯데건설	7	116,868	10	1,543,177	143	1,320
두산에너빌리티	4	2,093,166	3	1,372,848	75	66
대우건설	3	566,768	2	1,001,807	67	177
GS건설	7	2,591,347	6	661,117	86	26
SK에코ENG	1	736,919	1	587,689	100	80
디엘이앤씨	7	370,741	3	576,584	43	156
자이씨엔에이	3	138,000	4	397,843	133	288
포스코건설	4	343,825	3	359,327	75	105
효성중공업	1	34,615	5	357,433	500	1,033
엘티삼보	2	99,227	3	331,676	150	334
부영주택	0	0	1	316,393	0	0
태영건설	0	-188	1	307,089	0	163,345
SK에코플랜트	0	31,086	1	305,182	0	982
LS일렉트릭	1	2,604	3	283,557	300	10,889
에스지씨이테크	3	50,840	1	276,131	33	543
도화ENG	26	119,127	34	205,033	131	172
LS전선	0	0	2	163,080	0	0

자료: 해외건설협회



IV. 시사점

2023년 세계 건설시장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2024년 이후 친환경과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단계에 진입할 전망

- 2022년 세계 건설시장은 전년 대비 3.9%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연간 3.3%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2023년 세계 인프라 시장 성장률은 7.0%에 달해 세계 건설시장 성장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도 7.3%에 달해 세계 건설시장 성장을 주도할 전망
- 1, 2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화석에너지 기반 인프라는 노후화로 교체시기가 도래했으며, 여기에 기후변화 이슈로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및 수소 등 친환경 인프라로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
- 2022년 글로벌 신규 발전소 건설 물량은 약 400GW로 추정되며, 이중 320GW가 태양광 및 풍력으로 건설되는 등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음
- 전기 및 자율주행 자동차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충전 및 지능형 교통 인프라 건설이 빠르게 증가

우리 기업들의 과거 수익성 중심의 보수적인 해외수주 스탠스에서 일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수주로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돼 2023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3년 국내 건설수주액은 전년 대비 7.5% 감소한 206.8조 원으로 민간 및 공공부문 모두 부진할 것으로 예상
- 국내 건설시장은 2019년 166조 원, 2020년 194.1조 원, 2021년 212.0조원, 2022년 223.5조 원으로 호황을 이어왔으나, 2023년 국내 건설시장은 금리상승 및 정부 SOC 예산 감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
- 수익성이 높았던 민간 주택시장이 금리인상으로 급랭하고 있으며, 당분간 국내 건설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 건설기업의 수주 전략이 국내에서 해외로의 전환이 필요해지고 있는 시점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방지 등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우리 건설기업들의 수주 전략 변화 및 역량 강화가 필요

- 세계 건설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분야는 인프라 분야이며, 인프라 분야는 2030년까지 연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할 전망



- 석탄 발전소 발주가 급감하는 등 글로벌 발전 플랜트 발주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전기 및 자율자동차 등장으로 현재의 교통 인프라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변경 및 교체될 것으로 예상
 - 석탄 및 가스 발전 플랜트의 주요 발주처였던 중동도 최근 들어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기조로 돌아서 향후 화석연료 기반의 플랜트 발주 트렌드에도 변화가 예상
 -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관련 인프라 투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우리 건설사들의 향후 신성장 동력은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에너지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확장을 위한 사업발굴 및 금융역량 강화가 필요
 -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의 경우 운영 노하우 및 자본조달이 성공의 핵심요인으로 플랜트 시공분야와 달리 상대적으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아 사업권 확보를 위해선 운영 및 금융조달 역량이 필요
 - 2022년 11월까지 우리기업들의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은 1.7%에 불과한 상황으로 글로벌 친환경 발주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해선 투자개발형 사업 발굴 및 투자 확대 등 수주 전략 변화가 필요